

• 電氣界의 回顧談 •

(第三回)

興味있는 歴史的
資料를 公開!!

8.15 後 對 以北 電力料金 支拂과 關聯하여.....



金 善 集

前韓國電力株式會社 專務
現東洋物產企業(株) 會長

다음 回顧談 主題로 들어가기 전에 筆者가 保管하고 있는 옛 手帖 메모 속에서 發見한 歴史的 資料를 우선 公開할까 한다. 第1回(80年8月号) 寄稿에서 掲載한 對以北 電力料金 支拂에 直接 關聯된 貴重한 資料이기에 더욱이 紙上에 公開하고 싶다.

八·一五解放 다음날 부터 10萬kW의 電力을 南韓으로 送電한 北韓當局이 電氣料金の 支拂을 1年以上 催促하지 않고 끝잘 協調的으로 나오다가 1947年 6月17日 平壤에서 開催한 第3次 美소共同委員會에서 電力料金 支拂에 關한 協定書를 決議하였던 것이다. 그 協定書의 主要骨字는 다음과 같다.

1. 受電電力量 : 837,678,737 kWh
2. 電力代金 : 16,334,735 원
3. 受電期間 : 自 1945年 8月 16日
至 1947年 5月 31日
4. 支拂方法 : 北韓이 要求하는 電氣資材 物資로 支拂
5. 資材價格決定 : 兩側代表가 後日 合意決定

이 協定書를 實行하기 위해 北韓側은 1等客車 2輛을 平壤에서 서울驛 構內에 特派하여 臨時事務室을 開設하고 電氣料金 精算에 들어갔던 것이다.

1947年 6月17日 美소共同委員會 (美側首席代表 하지中將, 소련側首席代表 스티코프中將)가 決定한 電力供給單價(0.0195원/kWH)가 어느程度 水準의 單價였는지 그 當時의 南韓의 綜合發電原價와 比較하면서 歴史的으로 考察해보는 것이 讀者여러분에게 매우 興味로울 것으로 思料된다. (別表参照)

侵略의 野慾과 蠻行을 恣行하는 소련과 北韓이라 할지라도 北韓이 保有하고 있는 電源이 大部分 水力發電所이며 또 北韓의 供給原價 構成內容의 係數를 우리側에서 너무나 尠尠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터무니 없는 주장과 固執은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대신 電力求償代金으로 物資를 引受할 때 소聯側은 생떼를

쓰며 價格을 깎으려고 여러가지 쇼—를 벌이기도 했었다.

이 供給單價 0.0195円/kWH이 適正水準이었던지의 與否를 判斷하기 위해 八一五解放 前後

의 發電原價 推移를 우선 參考로 表記했다. 解放前 期間의 統計數字는 南北韓 全体에 對한 것은 勿論이며 朝鮮電業株式會社 發刊 1957年度 電氣事業便覽을 引用한 것이다.

| 期 間 | 水力原價 | 火力原價 | 發電原價 | 供給原價 |
|-----------------|-------------|-------------|-------------|-------------|
| 44.4.1.~44.9.30 | 0.0057円/kWH | 0.0233円/kWH | 0.006 円/kWH | 0.0062円/kWH |
| 44.10.1~45.3.1 | 0.0010 | 0.0222 | 0.007 | 0.0079 |
| 45.4.1~45.9.30 | — | — | 0.009 | 0.0109 |
| 45.10.1~46.3.31 | 0.0138円/kWH | 運 休 | 0.053 円/kWH | 0.0590円/kWH |
| 46.4.1~46.9.30 | 0.0372 | 5.8100 | 0.104 | 0.1159 |
| 46.10.1~47.3.31 | 0.1083 | 0.0316 | 0.177 | 0.1931 |
| 47.4.1~47.9.30 | 0.1040 | 1.1000 | 0.299 | 0.3317 |
| 47.10.1~48.3.31 | 0.2187 | 0.4624 | 0.949 | 1.0213 |
| 48.4.1~48.9.30 | 0.3350 | 6.2800 | 2.146 | 2.3785 |
| 48.10.1~49.3.31 | 0.8300 | 1.8600 | 3.066 | 3.8030 |
| 49.4.1~49.9.30 | 0.5603 | 3.3300 | 3.263 | 3.6534 |
| 49.10.1~50.3.31 | 1.4460 | 2.8300 | 5.974 | 6.9720 |

八·一五 翌日 부터 繼續하여 北으로 부터 受電이 可能했지만 給電關係 通話 以外에는 北韓 關係 資料가 全然 入手 不可能하였으므로 北韓 關係 統計數字는 不得已 推理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上記表에서 比較基準이 될만한 統計數字는 1945年 4月 1日 부터 1945年 9月 30日 까지의 示數가 가장 適切할 것으로 思料된다. 故로 이 表記期間의 供給原價 0.0109円/kWH은 南北分斷 前後를 通하여 同一 會計期間 동안 同一한 供給原價가 維持되었을 것으로 看做하여도 無妨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推理의 根拠는 別途로 나중에 說明) 따라서 美소共同委員會가 決定한 受電單價가 實供給原價에 比 해約 倍가 되었던 것을 感知할 수 있다.

若干 脱線하는 것이 되겠지만 電力代金 支拂 協定에서 確定한 受電 電力量이 南韓 全体의 發電 電力量에 比해 어느程度의 占有率을 가지고 있는지였 考察해 보면 約 80%임을 推定할 수 있다.

또한 1945年 下半期の 南韓單獨運營때의 發電原價와 供給原價에 比較하면 約 3分の1 價

格에 不過하여 有利함을 알 수 있다.

특히 電力代金 精算期間의 最終日인 1947年 5月 31日을 基準日로 할때 北韓도 解放後 1年 9個月 사이에 相當한 原價上昇이 있었을 것으로 假想한다면 美소共同委員會에서 決定한 供給單價는 우리側에 매우 有益했던 것으로 思料된다.

1948年 5月 14日 對南送電이 予告없이 突然히 斷電된後 우리 政府와 美軍政當局이 運休中에 있던 南韓 最大發電設備인 寧越火力發電所 (107,000kW)를 위시하여 모든 發電設備의 總動員 態勢를 갖추었던 1950年初의 綜合發電 單價(朝鮮電業株式會社가 京電과 南電 兩配電會社에 供給하는 供給單價) 5 圓/kWH에 比하면 隔世之感을 느낄 程度로 隔差가 있었다. (5 圓의 算出根拠는 다음章에 說明)

八·一五解放後 처음으로 貨幣改革이 있었던 1952年 (六·二五動亂으로 政府가 釜山으로 南下했을 當時) 前後에는 인플레이가 極甚하고 貨幣도 100對1로 改革되었기 때문에 第1次 經濟開發 五個年計劃의 初年度인 1961年の 韓國의

綜合發電 原価 1.041환/kWH과 比較하는 것은 큰 意味가 없겠으나 參考삼아 揭示해 보았다. 勿論 다음 機會에 分析 評價하여 連載할 생각이다. 第2次 貨幣改革(10對1)이 있었던 1962年의 綜合發電 原価 1.270원/kWH도 參考로 記錄해 보았다.

韓國의 電氣事業 再編成의 歷史를 回顧해 볼 때 筆者는 八·一五解放後 두차례의 再編成이 있었다고 主張하고 싶다. 即 第一次 再編成은 發電會社와 配電會社의 分離 運營이었다. 即 大韓民國政府가 樹立되어 初代商工長官으로 任 永信女史가 在任하시던 1949年 京城電氣株式會社가 運營하고 있던 唐人里火力發電所(設備容量: 22,500kW)와 南鮮電氣株式會社가 運營하고 있던 釜山火力發電所(14,000kW) 等等을 朝鮮電業株式會社에 移管한 再編成體制인 것이다. 지금의 韓國電力株式會社를 1961年 7月에 創立 發足시킨 電力3社統合은 第2次 電力會社 再編成에 該當되는 것이다.

八·一五解放 直後에는 南韓에 4個의 電氣事業체가 있었는데 發電事業을 當爲하는 朝鮮電業(株)과 配電事業을 當爲하는 3個의 配電會社 即 京城電氣株式會社, 南鮮電氣株式會社 西鮮電氣株式會社가 있었다. 西鮮電氣株式會社는 配電事業地域이 狹少하고 規模가 작아 京城電氣株式會社에 併合되었던 것이다.

任永信商工長官이 京電(社長 李泰煥氏)과 南

電(社長 張穆相氏)이 運營하고 있던 發電事業을 朝鮮電業에 移管을 斷行한 動機와 決心은 兩配電會社가 朝鮮電業에게 電力代金を 高질적으로 滯納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兩配電會社는 火力發電所用 輸入有煙炭 代金を 未拂狀態로 長期 끌고 나가는 經營不實의 面을 露出시켰기 때문에 當局으로 하여금 小規模나마 (1千萬kW의 發電設備를 保有하고 있는 지금에 比하면 小規模의 印象이지만 1949年 當時로서는 衝擊的인 斷行이었다) 電力事業의 再編成을 斷行토록한 動機가 되었던 것이다. 第1次 電力再編成을 促進케 하였던 또하나의 큰 動機는 北韓이 1948年 5月14日 突然히 對南送電을 斷切한 後 運休中에 있던 南韓의 最大發電所 寧越火力發電所(107,000kW)와 寧越鋳業所(磨차 炭鋳)를 巨額의 國庫金을 投入하여 商工部當局이 直接 緊急復旧工事に 臨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當時의 背景이다.

第1次 電力再編成이 實施된 後의 朝鮮電業(株) 綜合發電原価 5원/kWH의 算出基礎를 暫時 窺보면 讀者여러분이 매우 異常하게 느낄 것이 確實하지만 이 表가 說明해 주는 그 當時의 電力行政의 一面을 吟味 回想해 보기 바란다.

1949年 5月30日 商工部가 承認한 朝鮮電業(株)에 對한 發電原價의 算出基礎 概要는 다음과 같다.

| 區 分 | 發 電 量 | 總 經 費 | 單 價 |
|----------------|-----------------|-----------------|--------------|
| 發電所純發電原價 | 604,790,400 kWh | 3,952,005,720 원 | 6.5345 원/kWH |
| 電業本社經費, 送電電費 等 | | +487,885,752 | 7.3413 |
| 電力損失 15% | -90,718,560 | | 8.6369 |
| 寧越運營費補助 | | -274,176,400 | |
| 寧越石炭代免除 | | -1,785,069,000 | |
| 小 計 | 514,071,840 | 2,380,646,072 | 4.6309 |
| 特殊財源保留額 | | +200,000,000 | |
| 合 計 | 514,071,840 | 2,580,646,072 | |
| 決 定 | | | 5.0000 원/kWH |

當局이 承認한 綜合發電 純原價 6.5345원/
kWH를 發電所別로 区分하면 다음 表와 같다.

| 發電所名 | | 設備容量 | 年間發電量 | 總經費 | 發電原價 |
|------|-----|------------|-----------------|-----------------|--------------|
| 火力 | 寧越 | 107,000 kW | 228,855,000 kWh | 2,076,733,652 円 | 9.0744 円/kWh |
| | 唐人里 | 22,500 | 81,687,000 | 910,225,808 | 11.1428 |
| | 釜山 | 14,000 | 38,631,600 | 438,057,647 | 11.3393 |
| | 木浦 | | 21,900,000 | 299,799,309 | 13.6895 |
| 水力 | 清平 | 39,600 | 153,913,200 | 112,039,896 | 0.7279 |
| | 蟾津江 | 14,400 | 61,670,400 | 84,921,816 | 1.3770 |
| | 雲岩 | 2,560 | 6,132,000 | 10,075,864 | 1.6431 |
| | 宝城江 | 3,120 | 12,001,200 | 20,151,728 | 1.6793 |
| 合計 | | 203,180 kW | 604,790,400 kWh | 3,952,005,720 円 | 6.5345 円/kWh |

〔筆者略歴〕

1919. 7. 15일 생

- | | |
|--------------------|-----------------|
| 1. 京畿高等學校 卒業 | 6. 空軍本部軍需局次長 |
| 2. 早稻田大學理工學部電氣科 卒業 | 7. 서울工大電氣科講師 |
| 3. 日本軍陸軍技術中尉 | 8. 中央産業(株) 常務 |
| 4. 商工部電氣局技術係長 | 9. 大韓電線(株) 常務 |
| 5. 陸軍第60通信戰隊長(中領) | 10. 韓國電力株式會社 專務 |
| | 11. 大韓電氣技師協會會長 |
| | 12. 東洋物産(株) 會長 |

〈111p에서 계속〉

② 의뢰업체수 : 6 개업체

③ 확정자수 : 4 명

(12) 기사회원 관계

① 신규가입자 : 23명

② 주소변경 : 4 명

③ 회비청구공문발송 : 2,000 매

④ 회원명부 자료작성

⑤ 각 지부별 카드정리

〈연수과〉

1. 1991년도 제15기(단기과정) 및 제16기(장기과정) 실무실습 교육 신청서류 검토, 접수.

(총 1,294 건)

실무수습 교육 신청접수 현황

1981. 1. 30. 현재

| 구분 | 1급 | 2급 | 계 | 비고 |
|----|-----|------|------|----|
| 단기 | 106 | 454 | 560 | |
| 장기 | 183 | 551 | 734 | |
| 계 | 289 | 1005 | 1294 | |

